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중국의 유학자인 주희는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궁리(窮理)를 배움의 방법 중 제일로 꼽으며, 그 궁리의 핵심은 독서라고 하였다. 하지만 무조건 읽기만 한다고 곧바로 배움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주희는 배움이 일어나려면 책을 읽을 때 반드시 질문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주희는 독서 방법으로서의 '질문'을 강조하며,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이야기하였다.

우선 주희는 질문을 제기할 때는 끊임없이 자신의 견해를 의심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저자의 주장은 의심하면서도 자신의 주장 역시 의심해야 한다는 것은 모른 채 읽는 것을 독서의 병폐라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저자의 주장에 질문을 제기하며 비판적으로 읽을 때는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 체계만을 강화하려는 편향된 사고가 있지 않은지 혹은 글의 이해를 가로막는 선입견이 있지 않은지 등을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세계를 확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주희는 질문을 제기한 후 질문의 답을 찾을 때는 여러 학자의 해설을 참고하여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여러 해설 중에서도 학자 간에 설명의 차이가 있는 지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서로 다른 설명을 비교하여 이해하다 보면 답을 찾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여러 해설 중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설명을 통해 자신의 시각을 넓힐 수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자신의 생각과 여러 학자의 생각을 비교하여 답을 찾는 과정에서 심화된 질문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끝으로 주희는 질문에 대한 답을 즉시 찾지 못한 경우에는 ㉠ 억지로 답을 찾지 말고 풀리지 않는 질문은 쌓아 두라고 하였다. 즉시 답을 구하는 대신 질문을 쌓아 둔 채 독서를 통한 학문적 탐구를 지속하다 보면 답을 찾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분야가 다를지라도 배움과 배움이 서로 연결되어 학문적 탐구의 수준이 점점 깊어지면 품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찾을 수 있고, 그 답은 또 다른 질문을 위한 단초가 된다고 보았다.

주희의 독서 방법은 현대의 독자들에게 단순히 정보를 수용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동적인 독서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1.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타인의 주장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장도 의심해야 한다.
② 질문에 대해 찾은 답은 또 다른 질문의 실마리가 된다.
③ 질문이 수반되는 독서를 통해 사물의 이치를 탐구할 수 있다.
④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려면 자신의 편향된 사고 유무를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⑤ 여러 학자의 해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독자 자신의 생각과 같은 지점이다.

2.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꾸준한 독서를 통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풀리지 않는 질문은 여러 분야의 독서를 하더라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다.
③ 독서를 중단하고 답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면 어느 순간 답의 단서를 찾게 되기 때문이다.
④ 질문에 대한 답 찾기를 보류하면 중요한 질문과 중요하지 않은 질문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⑤ 지속적으로 독서하다 보면 배움이 연결됨으로써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3. 다음은 학생의 독서 일지 중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나는 인간의 욕구를 위계로 구분하여 설명한 어느 심리학자의 책을 읽으며 ⓐ '모든 인간에게 자아실현이 최상위의 욕구라는 저자의 주장은 지나친 일반화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제기했다. 질문에 대해 살피다 보니 ⓑ 나는 공동체 소속의 욕구가 최상위의 욕구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겠다는 의심이 들었다. 질문의 답을 찾을 때 ⓒ 여러 책을 찾아 학자 간의 설명이 서로 다른 대목을 중심으로 비교하며 읽었다. 이를 통해 ⓓ '문화권마다 최상위의 욕구는 다를 수 있다.'라는 내용을 새로 알게 되었다. 책을 살펴보며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 ⓔ 연구 보고서의 주제로 삼을 만한 질문도 떠올랐다.

① ⓐ: 배움이 일어나기 위해 주희가 필요하다고 한 독서 방법이겠군.
② ⓑ: 주희가 지적한 독서의 병폐에 빠지지 않기 위해 가져야 할 자세겠군.
③ ⓒ: 자신의 견해에 의문을 제기하며 선입견이 있지 않은지를 점검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군.
④ ⓓ: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을 알게 되어 시각을 넓힐 수 있었겠군.
⑤ ⓔ: 자신의 견해와 여러 학자의 견해를 비교하였기 때문에 가능했겠군.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로고스를 가진 유일한 동물이자 정치적 동물이라 정의한다. '로고스'는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말을 의미한다. 그에 따르면 동물은 목소리를 통해 고통이나 쾌감만을 전달하지만, 인간은 로고스를 통해 무엇이 좋고 나쁜지 ⓐ분별할 수 있으며, 자연이 인간마다 다르게 부여한 목적에 부합하는 삶인 '좋은 삶'을 추구할 수 있다. 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본성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하며, 완전한 공동체인 폴리스 안에서 로고스를 통해 공동의 일을 결정함으로써 최상의 좋음에 ⓑ도달할 수 있는 정치적 동물이라 보았다. 이때 그는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 간의 평등 보장을 위해 법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 아렌트 역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폴리스와 같이 여러 사람이 모인 공적 공간에서 로고스를 통해 공동의 생활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공적 공간에서 공동의 생활에 참여하는 것을 '행위'라고 규정했으며, 행위는 인간의 근본적인 조건인 다원성을 기반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다원성은 인간은 인간이라는 점에서 모두 동일하지만 개별적인 존재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아렌트에 따르면 이러한 다원성으로 인해 인간은 공동체를 구성하고 공동체 안에서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말을 통해 타인에게 자신의 고유한 정체를 드러내려고 한다. 따라서 행위에는 반드시 말이 수반된다고 하였다.

아렌트에 따르면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적 공간은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발언을 통해 공적 문제를 결정함으로써 정치적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다. 정치적 자유는 인간을 인답게 만드는 것으로, 개인적 욕망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는 소극적인 자유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고유한 정체를 드러내고 공동의 일에 관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때 그녀가 말하는 권력은 지배자의 소유가 아니다. 아렌트는 정치가 오직 권력 쟁취를 위한 과정으로만 이해됨을 비판하고, 권력은 시민들이 의견을 나눌 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므로 권력은 이미 공적 공간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다. 즉 정치적 자유를 향유한다는 것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주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렌트는 공적 공간을 형성하고 보존하기 위해 사람들이 약속을 통해 구성한 제도적 장치가 헌법이며, 혁명의 진정한 목표는 헌법 제정을 통한 정치적 자유의 확립이라고 보았다. 그녀에 따르면 법은 궁극적으로 시민 사이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은 비언어적 수단인 폭력이 아닌 발언을 통해 문제를 결정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렌트는 ㉠법의 정당성은 법이 개인들 간의 행위의 결과로 만들어진 후 행위를 보장하는 경우에만 확보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은 권력을 독점하려는 지배자를 저지하고 시민이 권력을 나누어 갖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아렌트의 철학은 정치가 소수의 능력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행위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깨달음을 준다.

(나)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서구 전통 철학은 말과 이성에 우위를 부여해 왔다. 이는 순수한 근원적 원리가 실존한다고 본 서구 전통 철학이 고정된 의미로서의 동일성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글과 달리 말은 고정된 의미를 ⓓ담보할 수 있으며, 그때그때 변하는 감각이나 감정과 달리 이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크 데리다는 이렇게 순수한 근원을 상정하는 서구 전통 철학을 '로고스 중심주의'로 규정하고, 로고스 중심주의가 서구 중심주의의 기반이 된다고 비판했다. 서구 전통 철학이 '말 대 글', '이성 대 감정' 등의 이분법적 사고를 낳았으며, 전자를 중심에 두고 후자를 타자화함으로써 타자를 배척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데리다는 지금까지 정당하다고 ⓔ간주되어 온 법·정치 질서를 해체하여 순수한 근원에 대한 환상을 깨고자 했다.

데리다는 입헌 정치 체제에서 다른 법에 정립 근거를 제공하는 헌법은 이제껏 자유롭고 평등한 모든 국민의 자발적 동의를 통해 창출되었다는 믿음을 통해 정당화되어 왔지만, 헌법은 제헌 권력인 국가가 성립된 이후 소급적으로 정당성이 부여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제헌의 순간에는 제헌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선험적 법 규범이 부재하기에 제헌 행위는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은 폭력과 다르지 않으며, 따라서 ㉡헌법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는 법은 정의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데리다는 법질서의 해체와 재구축을 통해 법과 정의 사이의 간극을 좁혀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질서의 해체를 통해 법의 정당성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법적 권위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해체하고 은폐된 폭력을 드러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법과 정치 질서를 재구축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정의는 언제나 불완전하기에 정의를 향한 해체는 종결되지 않는다. 즉 데리다는 법의 정당성은 정의 실현을 위한 끊임없는 해체와 재구축의 반복을 통해 도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데리다가 구현하고자 하는 정의는 타자를 향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제헌의 순간 형성된 국가는 '우리'라는 동일성을 중심에 두고 경계를 설정하며, 이러한 경계는 국경 통제뿐만 아니라 타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로 나타난다. 데리다는 국가의 동일성이 우연히 형성됐을 뿐만 아니라 불안정하다고 지적하며, 이질적인 것에 대한 개방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국가의 틀로 인해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배제를 줄여 나감으로써 더 나은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데리다의 철학은 서구 중심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그동안 소외되었던 주변부 문화에 주목하고 상대주의적 사고에 관심을 갖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4.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는 로고스에 대한 여러 철학자의 주장을 시대적 배경과 연관지어 고찰하고 있다.
② (나)는 로고스를 중심으로 한 사상의 경향을 언급하고 이를 비판하는 철학자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
③ (가)와 달리 (나)는 로고스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보인 철학자들의 주장을 소개하고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다.
④ (나)와 달리 (가)는 로고스의 개념을 정의한 후 개념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로고스라는 개념을 수용하여 발전시킨 철학자들의 주장에 대한 의의와 한계를 밝히고 있다.

5. (가)의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ㄱ)와 아렌트의 견해(ㄴ)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ㄱ은 폴리스에서 최상의 좋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고, ㄴ은 공적 공간에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② ㄱ은 로고스를 통해 타고난 목적에 맞는 삶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 ㄴ은 로고스를 통해 고유한 정체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③ ㄱ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것이고, ㄴ은 인간이 인간의 근본적인 조건으로 인해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④ ㄱ과 ㄴ은 모두 법을 통해 시민 간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⑤ ㄱ과 ㄴ은 모두 말을 통해 공동의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권력 정립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6. 다음은 갑과 을이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갑 : 데리다는 끊임없이 법질서를 해체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법질서를 모두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질서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허무주의가 아닐까?
을 : 데리다의 철학은 허무주의가 아니야. 왜냐하면 데리다의 해체 철학은 [㉮] 하는 철학이기 때문이야.

① 법과 정의 사이의 간극을 좁혀 나감으로써 법질서의 해체와 재구축을 중단
② 법의 정당성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법적 권위에 대한 믿음을 해체
③ 구성원의 자발적인 동의를 바탕으로 불안정한 경계를 안정화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창출
④ 정의롭지 않은 법에 대한 해체와 법질서의 재구축을 반복함으로써 이질적인 것에 대해 개방된 사회를 추구
⑤ 정의의 기준을 재사유함으로써 완전한 정의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법적 질서를 구축하여 법질서의 해체를 지향

7.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공적 공간에서 공동의 생활 참여가 중요함을, ㉡은 국가 설립의 기반이 부재함을 비판하는 입장이다.
② ㉠은 특정인이 권력을 독점하려는 것을, ㉡은 제헌 행위라는 폭력이 정당화되어 온 것을 비판하는 입장이다.
③ ㉠은 로고스를 통해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견해에, ㉡은 근원적 원리로서의 로고스가 실존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④ ㉠은 비언어적 수단을 통해 문제를 결정하는 것에, ㉡은 공적인 믿음의 해체를 통해 법에 은폐된 폭력을 드러내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⑤ ㉠은 개인적 욕망에 따른 행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치 질서 확립의 시급성에, ㉡은 서구 중심주의를 해체하기 위한 정치 질서 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8. (가),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절대 왕권 체제였던 A 국에서 평민들의 혁명이 일어났다. 투표로 선출된 각 지역 대표들은 많은 토의 끝에 국민 주권론을 사상적 기반으로 하고 국민에게 동등한 참정권을 부여하는 헌법을 제정하여 B 연방국을 설립하였다. B 연방국은 주민 자치 제도를 보장하고 주민 의회를 통해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B 연방국의 C 지역에서 이민자들이 교육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C 지역의 주민 의회는 이민자에게 C 지역 주민과 동등한 교육권을 부여하는 법률을 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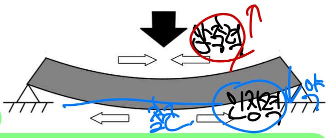
① A 국에서의 혁명으로 B 연방국이 설립된 것에 대해 (가)의 아렌트는 혁명의 진정한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겠군.
② B 연방국의 헌법이 제정된 것에 대해 (가)의 아렌트는 권력이 내재되어 있는 공적 공간을 보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보겠군.
③ B 연방국이 주민 자치 제도를 보장하는 것에 대해 (가)의 아렌트는 국민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 보겠군.
④ C 지역의 이민자들이 교육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 (나)의 데리다는 국가의 틀로 인해 타자에 대한 배제가 발생한 것이라 보겠군.
⑤ C 지역의 주민 의회에서 법률을 발안한 것에 대해 (나)의 데리다는 동일성을 중심으로 이민자에 대한 차별을 줄여 나가는 과정이라 보겠군.

9. 문맥상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가를
② ⓑ : 다다를
③ ⓒ : 누릴
④ ⓓ : 뒷받침할
⑤ ⓔ : 여겨져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긴 다리 위에 자동차가 가득할 때, 다리는 어떻게 무게를 지탱할 수 있을까? 다리에 가로놓이는 부재인 보는 주로 콘크리트로 만드는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콘크리트가 더 큰 하중을 버티도록 설계하여 무게를 지탱하게 할 수 있다. 하중 등의 외력이 부재에 작용할 때 그 반작용으로 부재 내부에는 저항하는 힘인 내력이 발생한다. 응력은 내력을 부재의 단면 면적으로 나눈 것으로, 단위면적당 내력의 크기이다. 응력에는 물체를 늘어나게 하는 힘인 인장응력, 이와 반대로 물체를 압축하는 힘인 압축력에 의해 발생하는 압축응력 등이 있다. 외력이 증가하면 응력도 증가하지만, 부재가 견딜 수 있는 최대한의 응력인 강도보다 응력이 커지면 부재에 균열이 발생한다. 이후 응력이 더 증가하면 부재가 파괴되는 극한 상태에 도달한다.



큰 하중이 보에 작용하면 보가 아래로 휘어지면서 변형이 일어난다. 하중에는 부재 자체 무게 등의 고정된 값인 고정하중과 구조물 위에서 이동하는 사람이나 자동차의 무게 등 변화하는 값인 활하중이 있으며, 이 둘을 더한 것을 사용하중이라고 한다. 하중에 의한 변형이 일어나면 보의 상단에는 압축력이 작용하여 길이가 짧아지고, 하단에는 인장력이 작용하여 길이가 길어진다. 보의 재료인 콘크리트는 압축에는 강하지만 인장에는 약한 재료로, 인장응력이 생기는 부분에 인장에 강한 철근이나 강연선 등의 강재를 배치하여 인장응력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왔다. 이러한 콘크리트 보강법에는 철근 콘크리트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가 있다.

철근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의 아래쪽에 강재인 철근을 배치한 것으로, 하중을 받으면 콘크리트는 압축력에, 철근은 인장력에 저항한다. 하중이 증가하여 인장응력이 인장강도보다 커지면 콘크리트에 회복할 수 없는 균열이 생겨 구조물의 내구성이 저하된다. 반면에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는 하중에 의해 발생하게 될 인장응력이 정해진 한도까지 상쇄되도록 미리 압축응력을 가한 것이다. 압축력과 인장력은 작용 방향이 반대이므로 압축응력을 미리 준 만큼 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인장응력은 상쇄된다. 이를 위해 인장응력이 생기는 부분에 고강도 강재를 배치하고 인장하여 그 반작용으로 콘크리트에 압축응력을 미리 가한다. 이때 가해지는 압축응력을 긴장력이라고 한다.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는 완전 긴장 콘크리트와 부분 긴장 콘크리트로 나눌 수 있다. 완전 긴장 콘크리트는 사용하중이 작용할 때 발생하는 인장응력이 상쇄되도록 긴장력을 강하게 준 것으로 부재에는 압축응력만 작용한다. 부재에 압축응력만 작용할 때 부재의 전 단면이 하중에 저항한다. 하지만 완전 긴장으로 설계된 구조물이더라도 사용하중이 계획한 무게보다 커지면 균열이 생길 수 있으며, 큰 긴장력이 도입되기 때문에 고정하중만 작용할 때 중앙부에 솟음이 발생한다. 부분 긴장 콘크리트는 완전 긴장 콘크리트보다 작은 긴장력을 준 것이다. 고정하중만 작용할 때 발생하는 인장응력이 상쇄되도록 긴장력을 준 것으로 부재에는 압축응력만 작용한다. 이때 부재의 전 단면이 하중에 저항한다. 사용하중이 작용할 때 부재에 균열이 발생하지만, 철근 콘크리트에 비해 균열폭이 작고 활하중이 제거되면 긴장력에 의해 균열이 폐합되는 회복 가능한 특성이 있어 내구성이 우수하다. 고정하중만 작용할 때 부재가 경미하게 솟거나 수평을 ⓐ 이루게 설계할 수 있다.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에서 긴장력을 도입하는 방식에는 ㉠ 프리텐션 방식과 ㉡ 포스트텐션 방식이 있다. 프리텐션 방식은 강재에 인장력을 가해 늘어난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콘크리트가 굳으면 강재의 인장력을 풀어 준다. 콘크리트에 부착된 강재가 수축하면서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힘이 콘크리트에 마찰력으로 전달되어 긴장력을 주는 방식이다. 포스트텐션 방식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난 후에 강재를 인장하는 방식이다. 콘크리트 내에 강재를 삽입할 관을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콘크리트가 굳으면 관에 강재를 삽입하고 인장한 후 양 끝을 정착장치로 고정한다. 콘크리트 양 끝의 정착장치가 서로 당기는 힘에 의해 콘크리트에 긴장력이 도입된다. 이처럼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작 과정에서 부재에 압축응력을 주는 방법인 것이다.

* 타설 : 건물을 지을 때 구조물의 거푸집과 같은 빈 공간에 콘크리트 따위를 부어 넣음.

10. 윗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① 강재의 인장력을 강하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인가?
② 부재의 아래쪽에 강재를 배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③ 압축응력으로 인장응력이 상쇄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④ 부분 긴장 콘크리트의 내구성이 우수한 이유는 무엇인가?
⑤ 완전 긴장 콘크리트의 부재에 솟음이 발생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11. ㉠과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활하중이 작용하기 전에 부재에 긴장력을 가한다.
② 강재의 인장력을 풀어 부재에 긴장력을 발생시킨다.
③ 정착장치가 서로 당기는 힘으로 부재에 긴장력을 가한다.
④ 강재가 수축하면서 전달되는 마찰력으로 부재에 긴장력을 가한다.
⑤ 콘크리트가 굳은 후에 강재를 인장하여 부재에 긴장력을 발생시킨다.

12.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교량 A에 설치된 보에 하중에 의한 균열이 심해져 기존 보를 철거하고 새로운 보를 제작하고자 한다.

설치될 보에 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하중은 고정하중 15kN, 활하중 15kN이며, 이를 바탕으로 설계된 콘크리트 보강법에 따른 균열하중*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철근 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 완전 긴장	㉰ 부분 긴장
균열하중 (kN)	25	35	30

* 균열하중 : 콘크리트 부재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하중.
(단, 모든 상황은 극한 상태 이내의 상황이라고 가정하며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음.)

① 교량 A에 설치된 보는 인장응력이 인장강도보다 커진 상황이었겠군.
② ㉮ 방식으로 보를 제작했을 때 예상되는 사용하중이 작용한다면 보의 상단 길이가 짧아지겠군.
③ 활하중이 25kN으로 늘어난다면 ㉯ 방식으로 제작한 보에는 인장응력이 발생하겠군.
④ 활하중이 10kN으로 줄어든다면 ㉰ 방식으로 제작한 보는 부재의 전 단면이 하중에 저항하겠군.
⑤ ㉰ 방식으로 보를 제작했을 때 15kN의 활하중이 지속적으로 가해진다면 보에 발생한 균열은 폐합되지 않겠군.

13. ⓐ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① 그림의 다양한 색깔이 조화를 이루었다.
② 성실했던 친구는 마침내 꿈을 이루었다.
③ 그는 마라톤 완주라는 목표를 이루었다.
④ 어머니는 평생 바라던 소원을 이루었다.
⑤ 물과 향료가 향수의 주성분을 이루었다.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도로교통법이 아무나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도로상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누구든 운전을 하려면 법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운전면허라는 행정행위를 통해 법적 금지를 해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행정행위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한다. 그리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종류 중에 법률효과의 내용이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하는 경우를 명령적 행정행위라고 한다.

허가는 명령적 행정행위의 하나로, 건축허가나 영업허가처럼 법으로 금지해 두었던 바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일정한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법률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한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으로 금하여야 할 행위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허가는 공익 침해가 우려되는 일정한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였다가, 법률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심사하여 공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금지를 해제하는 상대적 금지의 해제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공익 침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금지해 두었던 바를 사전에 해제하는 행정행위가 허가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 행정청의 입장에서는 허가가 보다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허가는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금지하였다가 그 금지를 해제하여 본래의 자유를 회복시켜 준다는 점에서는 예방적 금지의 해제 행위로 볼 수 있다. 허가는 잠정적으로 금지해 두었던 바를 법률요건을 갖추었다면 해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달리 예외적 승인은 행위 자체가 사회적으로 유해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에 의해 금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여 개인의 법적 지위를 확대하여 주는 억제적 금지의 해제 행위이다. 법에 따라 학교 근처에서 운영할 수 없도록 한 LPG 충전소를 예외적인 경우에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 그 예이다. 따라서 예외적 승인의 경우 금지의 해제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이 인정되며, 금지를 해제할 만한 사유인지에 관한 입증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한편 허가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아, 법률요건을 충족했다면 행정청은 법에 정해진 대로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 행정청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가에 대해 문제가 되었다. 판례는 음식점 영업허가 등의 경우는 허가의 거부를 부인하여 왔으나, 중대한 공익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판례에서는 중대한 공익을 지키기 위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행정청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허가는 원칙적으로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허가를 거부할 만한 사유인지에 관한 입증의 책임은 행정청이 진다.

또한 허가는 형성적 행정행위인 특허와도 구별할 수 있다. 형성적 행정행위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법률효과의 내용이 특정인에게 법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변경·소멸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허는 공무원의 임명, 버스운송사업면허처럼 본래 가지고 있지 않은 법률상의 힘을 특정인에게 새롭게 설정한다. 그래서 허가는 신청 없이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특허는 항상 신청을 필요 요건으로 한다. 특허를 받은 자는 특허를 통해 얻은 법률상의 힘을 법적으로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동종 업종의 다른 종사자에게 특허를 부여함으로써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때에는 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허가는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할 뿐 그 행위와 관련된 이익까지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1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종류를 법률효과의 유무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②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법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③ 명령적 행정행위를 통해 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를 적법하게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④ 명령적 행정행위는 경우에 따라 인간이 가지고 있던 자연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⑤ 형성적 행정행위를 통해 특정인에게 법률상의 힘을 새롭게 설정하여 주는 것이 가능하다.

15. 허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상대적 금지의 해제이자 예방적 금지의 해제 행위이다.
② 특허와 달리 신청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③ 거부할 수 있는 행정청의 권한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④ 금지해 두었던 행위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관련된 이익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행정행위이다.

16.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한 번에 허가하여 공익을 보호하는 것이 사안마다 판단하여 금지를 푸는 방식을 반복하는 것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② 개인의 법적 지위를 확대하여 주는 것이 금지를 해제하여 본래의 자유를 회복시키는 행정행위를 하는 것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③ 실제 발생한 공익 침해를 수습하기 위해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금지했던 바를 해제하는 것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④ 사전에 금지하지 않고 자유롭게 두는 것이 앞으로 공익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행정행위를 하는 것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⑤ 법률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금지했던 바를 해제하는 것이 공익 침해를 제거하기 위해 사후에 행정행위를 하는 것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1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갑은 특정 산림 지역에 건축물을 짓기 위해 관련 행정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한다고 할 때,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상황이 있다고 하자.

(가) 갑의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도 배치되지 않으므로, 행정청은 갑의 신청이 법률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였다.

(나) 갑의 건축허가신청이 법령이 규정하는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 지역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행정청은 갑이 신청한 토지에 자연 유지와 환경 보전이라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갑의 건축허가신청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해당하여 건축물의 건축 행위가 법령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행정청은 갑이 신청한 건축물의 건축 행위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금지한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하였다.

① (가)에서 행정청은 갑의 신청을 허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겠군.
② (나)에서 행정청은 예외적으로 갑의 신청에 대해 허가를 거부할 수 있겠군.
③ (나)에서 갑의 신청이 금지를 해제할 만한 사유인지에 관한 입증은 갑이 해야겠군.
④ (다)에서 행정청이 갑의 신청을 허용했다면 이는 억제적 금지의 해제 행위로 볼 수 있겠군.
⑤ (다)에서 갑의 신청이 금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행정청이 재량권을 발휘한 경우라 볼 수 있겠군.

[18~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알고 보면 모두 목구멍이 죄였지요. 오죽하면 그래 이놈의 팔자 될 대로 돼라 싶어 제가 만든 물건에다 실없는 낙서를 갈겨 넣은 일까지 있었다니까요……."

"낙서라니, 어떤 식으로 말이오?"

"그야, 이 사기 사 주면 부자가 된다고, **사기 값 사정을 사기에다 한** 거지요."

"허허, 그것 참 희한한 물건이 되었겠군요. 그래 앞으로도 또 한 번 그래 볼 생각 없소?"

용술의 이야기에 사내는 역시 관심이 대단했다. 그는 이제 거의 노골적으로 용술과의 공모를 제의하고 나섰다. 하지만 ㉠용술은 아직 거기까지는 자신이 없었다. 노인의 눈이 너무도 두려웠기 때문이다. 노인의 책벌이 너무도 힘들고 가혹했기 때문이다.

알고 보면 용술은 그 노인의 눈을 속여 댄 한때의 실수로 하여 이날까지도 참기 어려운 책벌을 겪어 오고 있는 처지였다. 그것은 아직까지도 가마를 열 때마다 계속돼 온 노인의 책벌이었다.

허 노인은 용술이 자기 허락 없이 제 손새에 눈치껏 흙을 개고 물레를 돌리는 것까지는 나무라지 않았다. 화병이나 항아리에 나름대로의 장식을 꾸미고 무늬를 넣는 것도 굳이 간섭을 하려든 적이 없었다. 그런 것에도 노인은 말없이 약을 발라서 가마에 넣어 주었다. 노인은 다만 가마를 열었을 때 용술의 솜씨를 용납하지 않을 뿐이었다. 가마를 열고 나면 용술의 사기는 노인의 손에서 남아나는 것이 없었다. 자신의 물건도 용납하기 어려운 판에 용술의 솜씨가 맘에 들 리 없었다. **몇 번**을 되풀이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모양을 짓는 솜씨에서보다 용술이 불을 때는 요령과 정성에 이유가 있는 것 같았다.

"사기장이가 가마도 달굴 줄 모르면서 모양을 짓는 일부터 익히면 쓸 만한 사기장이가 되기 어려워. 불 때는 법을 익히는 게 사기장이가 되는 근본인 게야. 넌 아직도 불이 서툴러……."

노인이 땀을 뻘뻘 흘리며 구워 낸 사기들을 네 것 내 것 가림없이 마구 깨부숴 댈 때면 그런 소리를 자주 내뱉곤 하였다. 하지만 ㉡용술은 언제까지나 그 노인을 참을 수만은 없었다. 자신의 눈길로는 살아 나온 사기와 죽어 나온 사기의 차이를 거의 알아볼 수가 없었다. 노인은 그저 그릇들을 깨부수는 데 재미를 붙인 심술꾸러기 한가지였다. 그는 차츰 노인의 눈을 속이기 시작했다. 가마를 열면 노인의 눈길이 닿기 전에 믿음이 덜한 것 몇 점씩을 미리 자리를 비켜 놓았다. 자리를 비켜 놓은 것은 밤새 마을로 옮겨져 식량이 되고 옷가지가 되었다. 노인 자신의 손길이 스친 물건은 눈에 드러나기 쉬워 손을 자주 못 댔지만, 용술 자신의 솜씨는 그렇게 하여 세상 밖으로 살아 나간 것이 상당수에 달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무슨 낌새를 알아차리기라도 한 것일까. 아니면 용술에게 그 **불일을 온통 내맡**겨 놓은 처사가 노인이 일부러 용술을 떠보기 위한 **시험**이었는지도 몰랐다.

그날도 마침 가마가 열리는 날이었는데, 허 노인은 이날따라 유독 더 느지막한 시간에 가마로 내려왔다. 그리고는 전에 없이 구워낸 사기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개수를 셈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용술은 벌써부터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있었다. 이번에도 그 노인이 오기 전에 사기를 몇 점 비켜 놓은 뒤였다. 노인이 그걸 알아차리지 못할 리 없었다. 하지만 노인은 웬일로 사기의 개수를 하나하나 모두 헤아려 보고 나서도 별달리 표정이 변하질 않았다.

"넌 아직도 불이 서툴다는 내 말을 못 믿는구나……. 불도 모르면서 흙 모양을 익힌들 무슨 소용이 되겠느냐 말이다."

나지막하면서도 무겁게 타일러 오는 말씨로 보아 용술의 허물을 이미 알고 있음에 분명했다. 하지만 노인은 더 이상 다른 말이 없었다. 그 대신 가마가 열릴 때마다 손에 지니고 내려온 작은 쇠망치를 말없이 용술에게 건넸다.

바로 그것으로 그 용술에 대한 노인의 가혹한 책벌이 시작된 것이었다. 용술은 그날부터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사기를 버려야만 했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허 노인은 가마에서 불길을 낼 때 마음을 다하여야 참다운 사기를 얻을 수 있다면서 사내에게 용술을 방해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이를 용술이 엿듣는다.

"**불길**은 **숨이 죽지 않고 타**더냐?"

하지만 용술은 아직도 그 노인의 물음에 대답을 하지 못했다.

— 불을 지키지 않고 웬 잡념이 그리도 요동을 치고 있느냐.

용술에겐 노인의 물음이 그런 꾸짖음 소리로만 들려오고 있었다.

"그만 내려가거라."

노인이 이윽고 한마디를 건네고 잠자리로 들어갈 채비를 하였다.

용술은 그제서야 하릴없이 다시 발길을 돌이켜 가마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가마로 내려와서도 밤새도록 괴롭고 저주스런 불길이 가슴속을 끝없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러나 다음 날 — 다음 날 새벽 가마의 불길이 그쳤을 때는 용술에게도 어느덧 밤새도록 ㉣가슴속을 소용돌이치던 불길이 조용히 숨을 죽이고 사그라들어 있었다. 가슴속은 밤새 모든 잡념이 불길 속에 활활 타 없어져 버린 듯 맑고 평온스럽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런 평온스런 마음으로 용술은 이날 아침 가마가 식기를 기다려 어느 때보다 일찍 가마를 열었다. 무슨 기미를 알아차려서인지, 노인도 이날은 전에 없이 일찍부터 가마로 내려와 열기가 가라앉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용술은 그 노인이 전날처럼 두렵지가 않았다. 밤새 몇 차례 가마를 비운 데다가 사내와의 일로 정신이 헛팔렸으니 가마 속 사기에는 자신이 있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사기가 죽고 사는 건 크게 염려가 되지 않았다. 일의 성패야 어찌 됐든 그 결과에 자신의 마음을 편히 맡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노인과 사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담담한 마음으로 가마를 열었다. 당연한 결과였는지 모르지만 가마에서 꺼낸 사기들은 하나도 제대로 구워진 것이 없었다. ㉤그것도 그 물건들의 죽은 데가 그렇게 역연하게 드러나 보일 수가 없었다.

용술은 여느 때처럼 **노인의 재촉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가마를 나온 사기들을 하나하나 말없이 깨부수기 시작했다. 아닌게 아니라 용술은 마치 자신의 마음을 깨부수듯 사기들을 차례차례 깨뜨려 나갔다. 도대체 한 가지도 용납할 수가 없는 것들뿐이었다. 노인도 그를 말리지 않았다.

— 이청준, 「불 머금은 항아리」 —

18.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내는 용술이 사기에 낙서한 것에 대해 궁금증을 가졌다.
② 용술은 허 노인의 허락 없이 항아리를 만들려고 한 것을 반성했다.
③ 허 노인은 용술이 가마 달구는 일보다 사기 모양 짓는 일을 익히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④ 허 노인은 가마에서 나온 사기의 개수를 세고 나서 용술을 타일렀다.
⑤ 허 노인과 사내 앞에서 가마를 연 용술은 사기가 제대로 구워지지 않은 것을 받아들였다.

19. 서사의 흐름을 고려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사내의 말을 수락했을 때 벌어질 상황에 대한 용술의 염려가 드러나 있다.
② ㉡: 허 노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용술의 불만이 드러나 있다.
③ ㉢: 예상하지 못한 허 노인의 행동에 당황한 용술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④ ㉣: 마음속의 괴로움이 사라진 용술의 담담한 내면이 드러나 있다.
⑤ ㉤: 가마에서 나온 사기를 구분할 수 있게 된 용술의 안도감이 드러나 있다.

20. 작은 쇠망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용술이 참된 사기장이가 되길 원하는 허 노인의 바람이 담겨 있다.
② 허 노인이 구운 사기에 손대지 않겠다는 용술의 집념이 담겨 있다.
③ 사내의 제의에 흔들린 용술에게 내린 허 노인의 책벌을 의미하고 있다.
④ 용술이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겠다며 허 노인에게 한 약속을 의미하고 있다.
⑤ 항아리에 무늬를 넣는 것을 간섭하지 않는 허 노인에 대한 용술의 불신이 담겨 있다.

[illegible]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예술가 소설은 예술가를 주인공으로 하여 예술관, 현실과의 갈등, 예술적 성장 등을 다룬다. 이 작품에는 사기 만드는 비법을 가르치기보다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 점의 허물도 용납하지 않는 스승과 그 뜻을 깨닫고 따르려는 제자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들의 삶을 통해 생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완전성을 지향하는 장인 정신과 수련공에서 예술가로 거듭나는 과정이 드러나 있다.

① 용술이 '사기 값 사정을 사기에다 한' 것을 보니, 사기장이들의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군.
② '몇 번'이나 '결과는 마찬가지'인 것을 보니, 허 노인이 한 점의 허물도 용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군.
③ '불일을 온통 내맡'긴 허 노인의 '시험'을 용술이 받게 된 것을 보니, 용술이 스승의 뜻을 헤아렸다고 볼 수 있겠군.
④ 허 노인이 '불길'이 '숨이 죽지 않고 타'는지를 물어본 것을 보니, 허 노인이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⑤ 용술이 '노인의 재촉을 기다리지 않'은 것을 보니, 용술이 수련공에서 예술가로 거듭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벗님네 **남산에 가**세 좋은 기약 잊지 마오
㉠ 익은 술 점점 쉬고 지진 화전 상해 가네
자네가 아니 간다면 내 혼자인들 어떠리

<제1수>

어허 이 미친 사람아 날마다 홍동*일까
어제 곡성 보고 또 어디를 가자는 말인고
우리는 **중시*** **급제**하고 좋은 일 하여 보려네

<제2수>

ⓐ 저 사람 믿을 형세 없다 **우리끼리 놀아 보자**
복건 망혜로 실컷 다니다가
돌아와 승유편* 지어 후세 유전하리라

<제3수>

우리도 갈 힘 없다 숨차고 오금 아파
창 닫고 더운 방에 마음껏 퍼져 있어
배 위에 아기들을 치켜 올리며 사랑해 보려 하노라

<제4수>

벗이야 있고 없고 남들이 웃거나 말거나
양신 미경*을 남이 말한다고 아니 보랴
평생의 이 좋은 회포를 실컷 펼치고 오리라

<제5수>

– 권섭, 「독자왕유희유오영」 –

* 홍동 : 홍에 겨워 다님.
* 중시 : 당하관 이하의 문무관에게 10년마다 한 번씩 보게 하던 과거 시험.
* 승유편 : 즐겁게 잘 놀았던 일을 적은 글.
* 양신 미경 : 좋은 시절과 아름다운 경치.

(나)

집에 옷 밥을 두고 **들먹은*** **저 고공**아
우리 집 기별을 아느냐 모르느냐
비 오는 날 일 없을 제 새끼 꼬며 **이르라**
처음에 할아버지 살림살이하려 할 제
인심을 많이 쓰니 사람이 절로 모여
풀 베고 터를 닦아 큰 집을 지어 내고
써레 보습 쟁기 소로 전답을 경작하니
올벼 논 텃밭이 여드레 갈이로다
자손에 전계하야 대대로 나려오니
논밭도 좋거니와 고공도 근검터라
저희마다 농사지어 가멸게* 살던 것을
요사이 고공들은 생각 어이 아주 없어
밥사발 크나 작으나 동옷이 좋고 궂으나
마음을 다투는 듯 호수를 시기하는 듯
무슨 일 생각에 흘깃할깃 하는 건가
ⓑ 너희네 일 아니하고 시절조차 사나워서
가뜩에 내 생각이 풀어지게 되었는데
엊그제 화강도(火强盜)에 가산을 탕진하니
집 하나 불타 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크나큰 세사를 어찌하여 치르려뇨
김가 이가 고공들이 새 마음 먹으스라
너희네 젊었느냐 생각 설마 아니하냐

(중략)

화살을 제쳐 놓고 옷밥만 다투느냐
너희네 데리고 추운가 주리는가
죽조반 아침저녁 더 해서 먹였는데
은혜일랑 생각 않고 제 일만 하려 하니
생각 깊은 새 머슴 어느 때 얻어 있어
집일을 맡기고 시름을 잊으려뇨
너희 일 **애달파**하면서 **새끼 한 사리** 다 꼬겠구나

– 허전, 「고공가」 –

* 들먹은 : 못나고도 마음이 올바르지 못한.
* 가멸게 : 재산이나 자원 따위가 넉넉하고 많게.

(다)

이자(李子)가 저녁의 서늘함을 맞아, 뜰에 나가 거닐다가 거미가 있는 것을 보았다. 짧은 처마 앞에 거미줄을 날리며 해바라기 가지에 그물을 펴고 있었다. 가로로 치고 세로로 치고 벼리로 하고 줄로 하는데, 그 너비는 한 자가 넘고 그 제도는 규격에 맞으며 촘촘하며 성글지 않아 실로 교묘하고도 기이하였다. 이자는 **그것**이 **간교한 마음이 있다고 여**겨 지팡이를 들어서 거미줄을 걷어 버렸다. 그것을 다 걷어내고는 또 내치려고 하는데, 거미줄 위에서 소리치는 것이 있는 듯하였다.

"나는 내 줄을 짜서 내 배를 도모하려 하거늘 ⓒ 그대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같이 나를 해치는가?"

이자가 성내어 말하였다.

"㉡ 덫을 설치하여 산 것을 죽이니 벌레들의 적이다. 나는 다시 또 너를 제거하여 다른 벌레들에게 덕을 베풀려고 한다."

다시 웃으며 말하는 것이 있었다.

"아, **어부**가 설치한 그물에 바닷물고기가 걸려드는 것이 어부가 포학해서이겠는가? **우인**이 놓은 그물에 들짐승이 푸줏간에 올려지는 것이 어찌 우인의 교(敎)이겠는가? 법관이 내건 법령에 못 완악한 사람이 옥에 갇히는 것이 어찌 법관의 잘못이겠는가? 그대는 어찌하여 **복희씨의 그물**을 시비하지 아니하고 백익의 불태움을 부정하지 아니하며 고요(皐陶)의 형벌 제정을 책망하지 아니하는가? 무엇이 이것과 **다르겠**는가? 더구나 그대는 내 그물에 걸려든 놈들을 알기나 하는가? 나비는 허랑방탕한 놈일 뿐 분단장을 하여 세상을 속이고 번화함을 좋아하여 좇으며 흰 꽃에 아첨하고 붉은 꽃에 아양 떤다. 이 때문에 내가 그물로 잡게 되는 것이다. 파리는 참으로 소인배라 옥 또한 참소를 입었고 술과 고기에 자기 목숨을 잊어버리고 이익을 좋아하여 싫증 내지 않는다. 이 때문에 내가 그물로 잡게 되는 것이다.

(중략)

아, 세상은 성강의 시절이 아니어서 형벌을 놓아두고 쓰지 않을 수 없고, 사람은 신선이나 부처가 아니어서 소찬만 먹을 수도 없다. 저들이 그물에 걸린 것은 곧 저들의 잘못이지 내가 그물을 쳤다고 하여 어찌 나를 미워한단 말인가? 또 그대가 저들에게 어찌하여 사랑을 베풀면서 나에게만은 어찌하여 화를 내고, 나를 훼방하면서까지 도리어 저들을 감싸준단 말인가? 아, 기린은 사로잡을 수 없는 것이고 봉황은 유인할 수 없는 것이니 군자는 도를 알아서 유설*로써 재앙을 입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것을 거울 삼아 삼가고 힘쓸지어다! 그대의 이름을 팔지 말며 그대의 재주를 자랑하지 말며 이욕으로 화를 부르지 말며 재물에 목숨을 바치지 마라.

경박하거나 망령되이 굴지 말며 원망하거나 시기하지 말며 **땅을 잘 가려서 밟고 때에 맞추어 오고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는 더 큰 거미가 있으니 그 그물이 나보다 천 배, 만 배가 될 뿐이 아닐 것이다."

이자가 **이 말을 듣**고, 지팡이를 던지고 **달아**나다가 세 번이나 자빠지면서 문지방에 이르렀는데 문에 자물쇠를 채우고서야 몸을 구부리고 비로소 한숨을 쉬었다. 거미는 그 실을 내어 다시 처음과 같이 그물을 치고 있었다.

– 이옥, 「지주부」 –

* 유설 : 죄를 지어 구속됨.

22.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간의 이동을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② 색채어를 통해 대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③ 점층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④ 설의적 표현을 통해 전달하려는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⑤ 계절감이 드러나는 표현을 통해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23.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은 상대의 잘못을 질책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② ㉠은 상대의 행동을 유도하려는 의도를 담아내고 있다.
③ ㉡은 상대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고 있다.
④ ㉡은 상대의 모습이 변화하리라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과 ㉡은 모두 상대를 억압하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24.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는 '곡성'에 가기 위해 '좋은 기약'을 외면한다.
② ⓑ는 '우리 집 기별'보다 자신의 이익에 관심을 둔다.
③ ⓒ는 자신의 '지팡이'를 더럽힌 거미줄을 걷어내려 한다.
④ ⓐ는 '승유편'을 짓겠다는 약속을, ⓑ는 '크나큰 세사'를 치르겠다는 약속을 어긴다.
⑤ ⓑ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일을 하지 않으려 하고, ⓒ는 거미가 '배를 도모'하지 않도록 거미를 없애려고 한다.

25.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문학 작품에서는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을 통해 작품의 의미가 효과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가)에서는 화자와 두 벗이 말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현장감이 유발되고 이들의 상이한 가치관이 제시된다. 이때 반복되는 벗의 거절에 구애받지 않는 것에서 화자가 지향하는 바가 강조된다. (나)에서는 화자가 고공에게 경계의 말을 전하며 태도의 변화를 요청한다. 그러나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고공으로 인해 화자는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지 못한 채 담화를 마무리하게 되며, 이를 통해 화자의 비판적 인식이 강조된다.

① (가)의 '남산에 가'자는 말에 '중시 급제'를 말하는 것에서 화자와 벗의 상이한 가치관이 제시된다고 볼 수 있겠군.
② (가)의 '우리끼리 놀아 보자'라는 말에 '우리도 갈 힘 없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현장감이 유발된다고 볼 수 있겠군.
③ (나)의 '들먹은 저 고공'에게 '이르'는 것에서 화자가 경계의 말을 전한다고 볼 수 있겠군.
④ (나)의 '죽조반 아침저녁 더' 하는 것에서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고공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군.
⑤ (가)의 '벗'이 있든 없든 '양신 미경'을 보려 가려는 것에서 화자가 지향하는 바가, (나)의 '새끼 한 사리'를 꼬며 '애달파' 하는 것에서 화자의 비판적 인식이 강조된다고 볼 수 있겠군.

26.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지주부」는 작가로 보이는 이가 대립하는 존재에게 패배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교활한 미물로 여겨졌던 거미가 인간의 말을 논리적으로 반박함으로써 거미에 대한 당대의 통념을 비롯한 인간의 편협한 사고를 효과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거미는 인간의 부정적인 모습을 우의적으로 비판하며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경고한다. 이를 통해 작가의 생각이 작가로 보이는 이가 아니라 그와 대립하는 존재로부터 전달되는 아이러니가 나타난다.

① 이자가 '그것'이 '간교한 마음이 있다고 여'긴 것은 거미에 대한 당대의 통념으로 볼 수 있겠군.
② '어부'와 '우인'이 그물을 놓은 것은 거미가 우의적으로 비판한 인간의 부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겠군.
③ '복희씨의 그물'과 자신의 그물이 '다르겠'냐고 거미가 말한 것은 인간의 편협한 사고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겠군.
④ 거미가 '땅을 잘 가려서 밟고 때에 맞추어 오고 가'라고 한 것은 작가의 생각이 작가로 보이는 이가 아니라 그와 대립하는 존재로부터 전해진 것으로 볼 수 있겠군.
⑤ 이자가 '이 말을 듣'고 '달아'난 것은 작가로 보이는 이가 패배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너무나 잘 아는
순환의 원리를 위하여
나는 피로하였고
또 나는
영원히 피로할 것이기에
구태여 옛날을 돌아보지 않아도
설움과 아름다움을 대신하여 있는 나의 긍지
오늘은 필경 긍지의 날인가 보다

내가 살기 위하여
몇 개의 번개 같은 환상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꿈은 교훈
청춘 물 구름
피로들이 몇 배의 아름다움을 가하여 있을 때도
나의 원천과 더불어
나의 최종점은 긍지
파도처럼 요동하여
소리가 없고
비처럼 퍼부어
젖지 않는 것

그리하여
피로도 내가 만드는 것
긍지도 내가 만드는 것
그러할 때면은 나의 몸은 항상
한 치를 더 자라는 ⓐ꽃이 아니더냐
오늘은 필경 여러 가지를 합한 긍지의 날인가 보다
암만 불러도 싫지 않은 긍지의 날인가 보다
모든 설움이 합쳐지고 모든 것이 설움으로 돌아가는
긍지의 날인가 보다
이것이 나의 날
내가 자라는 날인가 보다

– 김수영, 「긍지의 날」 –

(나)

한 섬의 보채는 아픔이
다른 섬의 보채는 아픔에게로 가네.

한 섬의 아픔이 어둠이라면
다른 섬의 아픔은 빛
어둠과 빛은 보이지 않아서
서로 어제는
가장 어여쁜
꿈이라는 집을 지었네.

지었네,
공기는 왜 사이에 흐르는가.
지었네,
바다는 왜 사이에 넘치는가.
우리여 왜,
이를 수 없는가 없는가.

한 섬이 흘리는 눈물이
다른 섬이 흘리는 눈물에게로 가네.

한 섬의 눈물이 불이라면
다른 섬의 눈물은 ⓐ.

불과 재가 만나서
보이지 않게
빛나며 어제는 가장 따스한
한 바다의 ⓑ하늘을 꿰매고 있었네.

– 강은교, 「섬 – 어떤 사랑의 비밀노래」 –

27.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추측의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다.
② 하강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③ 동일한 구절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④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이 지닌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
⑤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자연물과 인간의 속성을 대비하고 있다.

28.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연에서 '나'는 '순환의 원리를 위하'는 자신의 모습이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② 1연에서 '나'는 '긍지'를 '설움과 아름다움'과 관련하여 인식하며 '오늘'이 지니는 의미를 깨닫는다.
③ 2연에서 '나'는 '번개 같은 환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것을 자신의 '원천'으로 여기지 않는다.
④ 2연에서 '나'는 '소리가 없'고 '젖지 않'은 채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바로잡아야 함을 인식한다.
⑤ 3연에서 '나'는 '피로'와 '긍지'가 모두 자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인식한다.

29.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는 '한 치'만큼 변화했다는 점에서 화자가 갖고 있던 조급함을 해소하는 주체이다.
② ⓑ는 '따스한' 것이라는 점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주체이다.
③ ⓐ는 '자라는' 것이라는 점에서 성장에 대한 지향을, ⓑ는 '꿰매'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화합에 대한 지향을 내포한다.
④ ⓐ는 '오늘'의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를 파괴하게 하는, ⓑ는 '어제'의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를 성찰하게 하는 대상이다.
⑤ ⓐ는 '나의 몸'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만남의 가능성을, ⓑ는 '한 바다'와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구복의 가능성을 드러낸다.

30.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와 (나)는 대립 관계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순환과 연결의 관계로 파악한다. (가)는 상반된 마음 상태가 순환을 이루는 관계를 보여 주며, 서로가 서로의 전제이며 어느 하나가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을 드러낸다. (나)는 고립되어 있는 두 섬이 대립적인 면을 지녔음에도 공통점을 갖고 있음을 보여 주며, 두 섬이 그 공통점으로 인해 연결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① (가)의 '모든 설움이 합쳐지'는 것이 '긍지의 날'이라는 것은, 설움이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겠군.
② (가)의 '긍지의 날'이 '모든 것이 설움으로 돌아가는' 날이라는 것은, 상반된 마음 상태가 순환을 이루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겠군.
③ (나)의 두 섬이 '꿈이라는 집을 지'은 것은, 고립되어 있는 두 섬의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겠군.
④ (나)의 한 섬의 '눈물'이 '눈물에게로 가'는 것은, 두 섬이 공통점으로 인해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⑤ (나)의 '불'과 '재'가 '빛나'는 것은, 대립적인 면을 지닌 두 섬을 연결되게 만든 공통점에 해당하는 것이겠군.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설홍이 크게 분하여 돌쇠를 꾸짖으며
"이놈, 너는 승상 댁 노복으로 불의한 마음을 먹고 승상을 죽여 소저에게 강상대죄를 범하였으니 네 어찌 세상이 용납하리오. 내 너에게 이 칼을 더럽히고 싶지 않으나 하는 수 없어 내 칼로 네 목을 베어 소저의 원수를 갚으리라."
하니, 돌쇠 눈을 들어 보니 쇠금용두 위에 소저를 데리고 앉아 있거늘 돌쇠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소리를 벽력같이 지르며
"이놈, 너는 평생 초면인데 무슨 욕심으로 소저를 빼앗아 데려가느냐? 데려가지 못할 바에는 내 칼을 받으라."
하며, 온 힘을 다하여 칼을 들어 용두를 치거늘, 설홍이 조금도 요동치 아니하고 들어오는 칼을 꺾어 방으로 던졌다. 설홍이 웃으며 말하기를

[A] "이놈아, 너는 아직 강보에 싸인 아이라. 산을 뽑는 기개를 지닌 초 패왕도 오강을 못 건넜거든 필부 주제에 어찌 역수를 건널 수 있겠느냐? 네가 무슨 재주로 나를 당하겠느냐. 부디 시키는 대로 하라."

하니, 돌쇠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 힘과 검술은 귀신도 측량치 못하는데 이제 내 칼을 두 번이나 막았으니 이놈은 대단한 놈이라. 힘으로 다투는 것은 불가능하겠다.'
하고, 주머니에서 오색 종이를 꺼내 오방신장에게 지성을 다하여 말하기를

[B] "집안에 도적이 들어와 나의 백 년 인연을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보통 놈이 아니다. 네 일시에 일어나 싸우라. 만일 동참하지 아니하면 군법으로 시행할 것이니 속히 거행하라."

하고, 풍백에게 보냈더니 문득 공중에서 오방신장이 기치와 창검을 들고 해와 달을 희롱하여 광풍에 조각구름같이 동서남북으로 쫓아 들어와 설홍을 둘러싸고 화살과 돌이 비 오듯 하였다. 그러나 설홍은 조금도 요동치 않고 둔갑을 베풀어 **몸을 감추**고 육갑육정으로 오행구궁팔괘를 이십 사방에 붙여 두고 풍운조화를 임의로 부리며 주역 육십사괘 중 축귀문을 소리 높여 읽으니, 오방신장이 각각 방향을 잃었으니 어찌 용납이 되리오. 문득 광풍이 크게 일어나 사방에서 검은 구름이 일어나며 화살과 돌이 비 오듯 하는지라. 귀신 병졸들이 견디지 못하여 갑옷을 버리고 슬피 울면서 달아나더라. 돌쇠 이러한 거동을 보고 어찌 두렵지 아니하랴. 목숨을 도모하고자 축지법을 써서 도망가거늘 설홍은 **광지법을 베풀**어 길을 **막**으니 돌쇠 크게 놀라 문밖에 나오지 못하고 방 안에 돌아다니다가 생각다 못하여 엎드려 빌며 말하기를
"소인의 죄가 많사오나 공자의 넓으신 덕으로 이놈의 가련한 목숨을 살려 주옵소서."
하였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설홍과 소저는 부부의 인연을 맺는다. 이후 가달국 침입으로 위기에 처한 황제를 설홍이 구한다. 이에 설홍은 대원수에 봉해져 가달국에 맞선다.

홍목철이 황동으로 먼저 들어가 대원수를 보시고 달왕을 유인하였다 말하니 원수 들으시고 즉시 병기를 갖추어 고대하더라. 이때 달왕이 황양동으로 들어가니 과연 흩어진 군사들을 거두려 와 보니 골 안에 가득하거늘 마음이 기뻐 왈
"아까 황양동 백성 만나지 못하였다면 북관으로 가다가 설홍의 복병을 듣고 이곳에 우리 군사 저다지 모여 있음을 보니 무슨 걱정 있으리오."
하며, 말이 끝나자마자 방포일성 소리 더욱 커지며 징과 북소리 하늘이 무너지는 듯 함성 소리 땅이 꺼지는 듯하더라. 사방 팔방으로 둘러 있고 산 위로 복병이 선득선득 내달아 분별이 없는지라. 사면으로 가달을 첩첩이 둘러싸고 팔방으로 둘렀는데 황진 설홍이 우레 같은 소리를 천둥같이 내지르며 번개같이 쫓아오거늘 달왕이 그제야 황동 내촌 백성에게 속은 줄을 알고 즉시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설홍과 싸울 때 반궁이 분분하여 뒤쫓아 분별하지를 못하겠더라. 칠십여 합에 원수 와룡검을 들어 치니 달왕의 투구 맞아 깨어지거늘 왕이 분기를 이기지 못하여 몸을 바람에 붙이고 창을 번개같이 놀리며 서로 싸울 때 사석이 날려 피차를 분별치 못하더라. 다시 오십여 합에 원수의 와룡검이 번득하더니 달왕이 땅에 엎드리거늘 선봉장 육목철이 달려들어 가달을 사로잡아 바로 결박하여 앉히고 좌우의 장졸이 긴 창을 들고 겨누어 쏘되 원수 설홍은 홍안에 봉목을 부릅뜨고 소리를 크게 지르며 왈
"이놈 달왕은 항복하라."
하는 소리 산악이 무너지는 듯하더라. 달왕이 이런 거동을 보고
"시운이 길하지 못하여 너의 간교에 사로잡히게 되었으나 너희들이 감히 항복하라고 한 너의 머리를 베어 내 앞에 바치라."
하니, 원수 분기하여 크게 소리 질러 왈
"네 죄상은 만만가지라 청춘을 아끼거든 항복하라."
하고, 무사에게 명하여 달왕을 돌아보고 소리하니 달왕의 두 발이 상지하고 몸을 구부리자 결박한 사슬이 터지면서 달왕이 모습을 바꾸어 흰 꿩이 되어 **생왕방으로 달아나**거늘 가다가 그

물에 걸려 떨어졌다. 원수 군사를 거느려 쫓아가며 그물을 걷어 보니 흰 꿩은 간데없고 **보라매**가 성문 밖으로 날아가 또 **그물 사이 횃득 어리**거늘 원수와 육목철이 가면서 이르기를

"달왕은 들어라. 네 변신하는 법을 내 먼저 알거니와 네 어디로 가느냐?"

하니, 난데없는 **백호가 내**달아 주홍 같은 입을 벌리고 고함을 지르니 산악이 무너지며 암석 사이로 달리며 군사 수백 명을 앞발로 찍고 맨입으로 물어 죽이나 장졸 중에 범을 잡을 자 없어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라 병장기로 겨누다 소리만 지르고 달아나거늘 백호는 원수와 목철을 바라보고 입으로 돌연 깨무니 백설이 분분한데 앞발로 흙을 파고 다니며 조금도 기탄없이 장난하며 절벽 위로 달아났다. 원수 대호의 하는 거동을 보고 괴이 여겨 급히 쫓아가니 범의 사나움을 더욱 보이는데 원수 따라가며 고함을 질렀다. 원수 실로 이를 잡고자 바위 위에서 떨어지니 달왕이 도리어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고 **변신하여 몸을 바람에 붙여 달아나**거늘 설홍이 쫓아가며 화룡검을 들어 달왕의 머리를 치니 눈 아래 구르는지라. 원수 본진으로 돌아와 황상을 보시고 달왕의 머리를 바치며 승전고를 울리니 즐거워하더라.

– 작자 미상, 「설홍전」 –

3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과장된 표현을 활용하여 상황의 긴박함을 드러내고 있다.
②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사건의 내막을 밝히고 있다.
③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인물 간의 관계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④ 내적 독백을 통해 사건의 반전이 일어날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⑤ 과거 회상 장면을 삽입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32.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육목철'은 달왕을 유인했다는 사실을 원수에게 전한다.
② '설홍'은 달왕이 승상에게 한 일이 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③ '달왕'는 설홍이 소저를 데려가는 것이 욕심이라며 설홍과 맞선다.
④ '달왕'는 설홍과의 대결에서 설홍을 힘으로 이기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⑤ '달왕'은 자기 진영의 군사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황양동 백성을 의심한다.

33.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는 상대방이 했던 행동을 언급하여 상대방을 무시하고 있다.
② [B]는 상황을 가정하여 상대방에게 특정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③ [A]와 달리 [B]는 고사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
④ [B]와 달리 [A]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제시하여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다.
⑤ [A]와 [B]는 모두 상대방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상대방의 잘못을 밝히고 있다.

3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설홍전」은 주체가 둔갑에 의해 몸을 감추거나 다른 형태로 바꾸는 '변신' 모티프에 의해 서사가 진행되는데, 변신과 도술이 결합하는 부분에서는 작품의 환상성이 부각된다. 변신은 주인공과 적대자 모두에게서 보이는데, 다른 인물의 원한을 해소해 주려는 것에서 비롯된 개인적 차원의 갈등 그리고 충을 실현하려는 주인공과 이를 방해하는 인물 간의 사회적 차원의 갈등에서 나타난다. 이때 갈등이 지속되면서 주인공의 영웅적 능력에 맞서 적대자 변신의 강도가 강화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① '오방신장'에 맞서 설홍이 '몸을 감추'는 데에서, 개인적 차원의 갈등에서 나타나는 변신을 확인할 수 있군.
② 설홍이 '광지법을 베풀'어 돌쇠의 길을 '막'는 데에서, 충을 실현하려는 주인공의 영웅적 능력을 확인할 수 있군.
③ 달왕이 '생왕방으로 달아나'는 데에서, 주인공을 방해하는 인물의 변신을 확인할 수 있군.
④ '보라매'가 '그물 사이 횃득 어리'다가 '백호가 내'닫는 데에서, 적대자 변신의 강도가 강화되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군.
⑤ 달왕이 '변신하여 몸을 바람에 붙여 달아나'는 데에서, 작품의 환상성이 부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제 1 교시

국어 영역(화법과 작문)

[35～37]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입니다. 석굴암은 한 번쯤 들어 보셨죠? (대답을 듣고) 네, 많은 분이 들어 보셨네요. 오늘은 여러분이 잘 모르고 있을 석굴암의 숨겨진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굴암이 인공 석굴이라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자료 제시) 보시는 것처럼 석굴암은 사람들이 화강암을 정교하게 다듬어 둥글게 쌓아 올린 뒤, 그 위를 자갈과 흙으로 덮어 만들었습니다. 화강암을 자갈층이 덮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사용된 화강암과 자갈, 흙의 무게만 해도 꽤 나갔다고 합니다. 석굴암이 이 무게를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청중을 둘러보며) 네, 많이들 궁금해하시네요. 그 이유는 바로 돔 구조에 있습니다. (자료 제시) 이렇게 석굴암의 천장은 둥근 형태를 통해 하중을 고르게 분산시킬 수 있는데요, 그래서 화강암과 자갈, 흙의 무게에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석굴은 습기가 잘 생겨 내부에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석굴암은 자갈층이 있어 이 문제가 해결되었는데요, 외부의 덥고 습한 공기는 자갈층을 통과하면서 차갑고 건조해진 상태로 석굴암 내부에 유입됩니다. (자료 제시) 영상처럼, 외부의 공기가 차가운 자갈층을 지날 때 공기 속 수분이 응축되어 자갈에 남아 공기는 차갑고 건조해지는 거죠. 공기 속 수분이 응축되는 것은 무더운 여름철 덥고 습한 공기의 수분이 차가운 페트병에 물로 맺히는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질문이 있네요. (청중의 질문을 듣고) 어떻게 공기가 화강암을 지나 내부에 들어올 수 있었냐는 질문이네요. 좋은 질문입니다. (자료 제시) 이처럼 화강암과 화강암 사이에 좁은 틈이 있는데요, 이 틈을 통해 공기가 내부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자료 제시) 보시는 것처럼 석굴암의 입구는 동짓날의 일출 방향을 바라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동짓날을 종교적으로 신성하다고 여겼기 때문인데요, 놀라운 점은 입구가 바라보는 방향이 현재 동짓날의 일출 방향과 비교했을 때 오차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당시의 기술로 동짓날의 일출 방향을 정확히 계산했다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석굴암에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더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을 통해 여러분이 석굴암을 좀 더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5.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청중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발표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② 청중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고 있다.
③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하도록 발표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④ 발표 중간에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며 청중과 상호작용하고 있다.
⑤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36. 다음은 발표자가 발표에 활용한 자료의 목록이다. 발표 내용을 고려할 때,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석굴암의 제작 과정을 재현하여 보여 주는 동영상 자료 ····· ㉠
- 천장에서 하중이 분산되는 방향을 나타낸 사진 자료 ····· ㉡
- 자갈에 수분이 응축되는 과정이 드러난 동영상 자료 ····· ㉢
- 화강암 사이의 틈을 확대한 사진 자료 ····· ㉣
- 석굴암의 입구가 동짓날의 일출 방향을 향하고 있음을 나타낸 사진 자료 ····· ㉤

① ㉠은 석굴암이 인공 석굴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데에 활용되었다.
② ㉡은 석굴암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데에 활용되었다.
③ ㉢은 외부의 공기가 석굴암의 자갈층을 통과할 때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활용되었다.
④ ㉣은 석굴암이 습기로 인해 겪는 문제를 설명하는 데에 활용되었다.
⑤ ㉤은 당시 사람들이 해가 뜨는 방향을 고려하여 석굴암을 설계하였음을 설명하는 데에 활용되었다.

37.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나타난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학생 1 : 자갈층을 통한 습도 조절 과정을 알게 되어 유익했어. 자갈에 남은 수분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인터넷에서 검색해 봐야지.

학생 2 : 지난번에 과제를 하며 첨성대가 동짓날의 일출 방향으로 설계된 것은 알았는데, 석굴암도 그렇네. 발표를 미리 들었다면, 과제에 석굴암도 포함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워.

학생 3 : 석굴암의 숨겨진 이야기 중, 예술적 가치와 관련된 이야기는 없을까? 학교 도서관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봐야겠어.

① '학생 1'은 발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② '학생 2'는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배경지식을 떠올리고 있다.
③ '학생 3'은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궁금증을 드러내고 있다.
④ '학생 1'과 '학생 2'는 모두, 발표에서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았음을 아쉬워하고 있다.
⑤ '학생 1'과 '학생 3'은 모두,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탐색하려 하고 있다.

[38～42] (가)는 동아리 학생들의 대화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 1'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 우리가 교지에 글을 싣기로 했잖아. 지난 회의에서 금융 이해력에 관한 정보를 알려 주는 글을 쓰기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룰지 이야기해 보자.

학생 2 : 지난번에 어디까지 이야기했지?

학생 3 : 금융 이해력의 개념을 정리했어. 건전하고 합리적인 금융 의사 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라고. [A]

학생 2 : 기억난다. 그리고 금융 이해력 관련 자료를 조사해 오기로 했지?

학생 1 : 맞아. 나는 자료를 찾다가 ○○신문에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금융 이해력 평균 점수가 매우 낮다는 기사를 봤어.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학생 2 : 그러게, 정말 심각하네. 고등학생들의 금융 이해력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학생 3 : 지금 우리가 누리는 금융 서비스가 편리하지만 금융 사기 같은 위험도 발생하게 하니까 이런 면에서도 금융 이해력은 중요한 것 같아.

학생 1 : 지금까지 금융 이해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럼 우리 이번 글의 주제를 금융 이해력을 높이는 방법으로 정하고 이제부터 어떤 방법을 글에 넣을지 논의해 보자. 어떻게 생각해?

학생 3 : 좋네. 내가 찾은 자료를 보면 수입, 지출 같은 기초적인 금융 지식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 금융 지식이 있으면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금융 지식 배우기를 금융 이해력을 높이는 첫 번째 방법으로 다루면 좋겠어.

학생 2 : 그래. 금융 지식을 배우는 방법도 같이 소개하면 좋겠어. 금융 서적이나 온라인 강좌를 활용하거나, 금융 뉴스를 검색하는 습관을 갖는 것도 좋다는 기사를 봤거든.

학생 3 : 좋은데?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 금융을 경험해 보는 것을 다루면 어떨까? 가상 투자 플랫폼에서 투자 연습을 해보면 금융 의사 결정을 경험할 수 있잖아.

학생 1 : 투자 연습을 하면서 금융 의사 결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좋네. 그리고 실제 돈을 잃을 위험도 없이 안전하게 연습할 수 있어서 더 유용한 것 같아.

학생 3 : 그리고 예산을 계획해 보는 것도 같이 소개하면 어때? 수입, 지출을 관리하고 저축 계획을 세우는 것을 배울 수 있어 좋다는 자료를 봤어.

학생 2 : 찬성해. 그리고 디지털 금융 사기 같은 위험에 대비하지 않으면 이런 노력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 [B]

학생 3 : 나도 그렇게 생각해. 기사에서 보니, 디지털 금융 환경이 자리 잡으면서 문자 메시지로 악성 링크를 보내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 같은 범죄도 크게 늘었대.

학생 1 : 그럼, 둘의 의견을 고려해서 이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개인 정보 보안 방법을 익히는 것을 세 번째 방법으로 짚어주는 것은 어때?

학생 2 : 좋은 생각이야. 모르는 번호에서 온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않고,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고 이중 인증을 설정하는 것을 안내하자.

학생 1 : 좋아. 그럼,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써 볼게.

(나)

금융 이해력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금융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에 필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 ○○신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금융 이해력 평균 점수가 매우 낮다고 합니다. 게다가 간편 결제 등 금융 서비스가 늘어난 요즘, ㉡ 금융 서비스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삶을 편리하게도, 위험하게도 만들 수 있어 금융 이해력을 키우는 것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 이해력을 높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금융 이해력을 높이는 첫걸음은 기초적인 금융 지식을 쌓는 것입니다. ㉢ 수입과 소득, 지출과 소비 같은 개념을 이해하면 재정 상태를 분석하고 정리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계획적으로 소비할 수 있습니다. 금융 지식을 쌓으려면 금융 관련 서적이나 온라인 강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금융 뉴스를 꾸준히 검색하는 습관을 들이면 최신 금융 트렌드와 사례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경험을 통해 금융 이해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 예를 들어, 가상 투자 플랫폼에서 모의 투자를 해보면 주식이나 채권의 변동성을 체감하며 투자 결정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실제 돈을 잃을 위험 없이 금융 의사 결정을 익히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예산을 계획해 보는 경험은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저축 계획을 세우는 과정을 배울 수 있어 유익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재무 목표를 설정하고 실현하는 능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는 개인의 정보 보안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익히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 문자 발송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스미싱 피해 건수가 2024년 8월 기준 3,248건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두 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모르는 번호에서 온 메시지 링크를 클릭하지 않고,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바꾸고 이중 인증을 설정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금융 이해력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금융 이해력을 키우기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38. (가)의 '학생 1'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난 회의 내용을 환기하며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
② 자신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참여자들의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③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며 참여자들의 의견을 묻고 있다.
④ 참여자의 발언에 공감하며 자신의 의견을 추가하고 있다.
⑤ 참여자들의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며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39. [A], [B]에 나타나는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에서 '학생 3'은 '학생 2'의 질문에 대답하며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② [A]에서 '학생 2'는 '학생 3'이 발언한 내용의 취지를 확인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③ [B]에서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에 동의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덧붙이고 있다.
④ [B]에서 '학생 2'는 '학생 3'이 제시한 정보를 언급하며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⑤ [A]와 [B]에서는 모두 '학생 3'이 '학생 2'의 발언을 요약하며 자신의 의견과의 공통점을 확인하고 있다.

40. (가)의 대화가 (나)에 반영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가)에서 금융 서비스의 편리함과 위험에 관해 언급한 내용이 (나)의 1문단에서 금융 이해력을 키우는 것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데에 제시되었다.
② (가)에서 기초적인 금융 지식에 관해 언급한 내용이 (나)의 2문단에서 기초적인 금융 지식이 쌓여서 생기는 장점을 설명하는 데에 제시되었다.
③ (가)에서 금융 지식을 배우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료에 관해 언급한 내용이 (나)의 2문단에서 재무 목표를 설정하고 실현하는 능력을 키우는 방법을 알려 주는 데에 제시되었다.
④ (가)에서 예산의 계획에 관해 언급한 내용이 (나)의 3문단에서 경험을 통해 금융 이해력을 높이는 것의 유익함을 드러내는 데에 제시되었다.
⑤ (가)에서 개인 정보 보안 방법에 관해 언급한 내용이 (나)의 4문단에서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일어나는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데에 제시되었다.

41.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출처를 제시하였다.
② ㉡: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제시하였다.
③ ㉢: 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념 간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④ ㉣: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된 예시를 제시하였다.
⑤ ㉤: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였다.

42. 다음은 (나)의 마지막 문단에 대한 선생님의 조언과 이를 반영한 마지막 문단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의 조언】
마지막 문단에 금융 이해력을 갖추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를 쓰면 좋겠어요. 그래서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 추가하면 어떨까요?

【마지막 문단】
금융 이해력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금융 이해력을 갖추면 우리는 바람직한 금융 의사 결정을 내려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경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금융 이해력을 키우기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① 개인에게 미치는 경제 환경의 영향을
② 지역과 국가의 경쟁력에 기여하는 효과를
③ 바람직한 경제 성장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④ 개인의 삶과 경제 환경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⑤ 사회의 경제적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43~45] 다음은 작문 상황과 이를 바탕으로 하여 학생이 작성한 초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 지역 신문 독자란에 빈집의 활용 방안과 관련된 글을 쓰려 함.

[학생의 초고]
우리 ○○ 지역에는 밤에도 불이 켜지지 않는 집들이 늘고 있는데 이 집들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주택인 빈집이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했을 때 그 주변으로 무질서가 확산된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빈집을 방치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우리 지역에는 상태가 양호하여 철거가 아니라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빈집이 많다. 이런 빈집들을 철거하기보다는 재활용하는 것이 환경을 보호할 수 있으므로 빈집을 재활용하는 것이 빈집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적절하다. 따라서 빈집을 우리 지역의 상황에 맞게 재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 공간으로 빈집을 재활용할 수 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을 때, 우리 지역에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를 고려하여 빈집을 문화 공간으로 재활용하면 빈집의 방치로 인한 문제도 개선되고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 지역의 특색을 살린 공간으로 빈집을 재활용할 수 있다. 우리 지역은 근대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이런 특색을 살려서 빈집으로 방치된 근대 주거 건축물을 정비하여 관광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것이다. 개항기부터 산업화 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축양식을 보여 주는 빈집들을 정비한 후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빈집 방치의

개선과 더불어 방문객의 증가로 인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A]

43. 초고에 반영된 글쓰기 계획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빈집의 정의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해야겠어.
② 빈집의 재활용 방안에 대해 예상되는 반론을 반박해야겠어.
③ 빈집의 발생 원인에 따라 빈집 문제 해결 방안을 나열해야겠어.
④ 빈집의 재활용 방안을 제시할 때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해야겠어.
⑤ 빈집을 지역 상황에 맞게 재활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비교해야겠어.

44. 다음은 학생이 초고를 작성할 때 떠올린 생각이다. 이를 고려할 때 [A]에 작성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글을 마무리할 때는 글에서 제시한 두 가지 빈집 재활용 방안을 쓰고, 빈집 재활용의 의의를 밝혀야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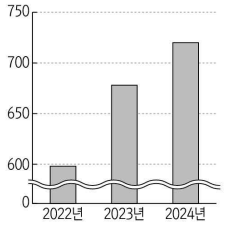
① 빈집을 우리 지역에 필요한 문화 공간과 지역 특색에 맞는 관광 자원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② 우리 지역의 요구와 상황에 맞게 빈집을 문화 및 관광 공간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는 빈집의 재활용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 지역 주민들이 노력할 시점이다.
③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을 철거하기보다는 재활용하여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빈집의 재활용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
④ 빈집을 청소년을 위한 공간으로 재활용하여 문화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우리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여 빈집을 지역에 필요한 공간으로 재활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⑤ 빈집을 방문객이 관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빈집을 우리 지역의 상황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면 우리 지역의 특색을 널리 홍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45. <보기>는 학생이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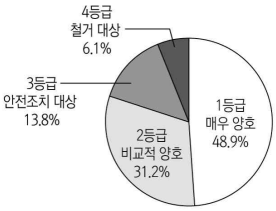
ㄱ. 통계 자료

ㄱ-1. ○○ 지역 빈집 현황



(단위 : 호)

ㄱ-2. ○○ 지역 빈집 등급별 현황



ㄴ. 신문 기사

상태가 양호하여 철거 대상이 아닌 빈집을 재활용하여, 건물 철거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을 감축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 □□시는 동네 곳곳의 빈집을 동아리실, 작은 콘서트장, 영화 상영회 공간 등 지역 청소년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ㄷ. 전문가 인터뷰

"빈집의 방치는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도심 재해의 요인이 되어 주민의 이탈을 유발해 더 많은 빈집을 발생하게 합니다. 빈집으로 방치된 고택들을 마을 호텔로 재활용함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하여 빈집 정비와 지역 상권 회복을 도모한 △△시 사례처럼, 역사적 가치가 있는 빈집을 숙박 공간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① ㄱ-2를 활용하여, ○○ 지역은 상태가 양호한 빈집이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는 내용을, 빈집을 철거하기보다는 재활용해야 하는 근거로 2문단을 보강한다.
② ㄴ을 활용하여, 빈집을 동아리실, 작은 콘서트장, 영화 상영회 공간으로 재활용한다는 내용을, 빈집을 청소년 문화 공간으로 재활용하는 사례로 3문단에 추가한다.
③ ㄷ을 활용하여, 역사적 가치가 있는 빈집을 숙박 공간으로 재활용한다는 내용을, 빈집으로 방치된 근대 주거 건축물을 재활용하는 방안으로 4문단에 추가한다.
④ ㄱ-1과 ㄷ을 활용하여, 증가 추세를 보이는 ○○ 지역의 빈집을 방치하면 더 많은 빈집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을, 빈집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근거로 1문단을 보강한다.
⑤ ㄱ-2와 ㄴ을 활용하여, ○○ 지역 3·4등급의 빈집을 재활용하여 빈집 철거로 인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을, 빈집 문제를 해결했을 때의 효과로 2문단에 추가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 이어서, 「선택과목(언어와 매체)」 문제가 제시되오니, 자신이 선택한 과목인지 확인하시오.

이번에는 44444333444?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을 홑문장이라고 하며,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을 겹문장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현우가 어제 학교 운동장에서 장미꽃 두 송이를 민지에게 주었다.'는 주어가 '현우가'이고 서술어는 '주었다'로 주술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므로 홑문장이며, '예쁜 꽃이 피었다.'는 관형사절 '예쁜'이 안겨 있으므로 겹문장이다.

'현우가 반바지를 입어 보았다.'는 '입어'와 '보았다'가 있어서 겹문장처럼 보이지만 홑문장이다. 이때의 '보다'는 보조 용언으로서 문장의 주어와 호응하지 않기 때문에 문장 전체의 서술어로 볼 수 없다. 보조 용언인 '보다'가 생략된 '현우가 반바지를 입었다.'는 성립이 가능한 반면, 본용언인 '입다'가 생략된 '현우가 반바지를 보았다.'는 본래 문장의 의미와 달라진 문장이 되거나 본래 문장의 의미를 유지할 경우에 비문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입어 보았다'에서 본용언 '입다'와 보조 용언 '보다'가 연결될 때, 이 두 용언을 연결해 주는 보조적 연결 어미 '-어'가 결합되어야 한다. 이처럼 보조 용언의 구성에 관여하는 보조적 연결 어미는 겹문장을 만들지 않는다.

하지만 '현우가 사과를 깎아 먹었다.'는 '깎다'와 '먹다'가 둘 다 문장의 서술어로 기능하므로 겹문장이다. '깎다'나 '먹다' 중 하나만 서술어 자리에 나타나도 문장이 성립되어 이 두 동사 모두 '현우가', '사과를'과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즉 '깎아 먹었다'는 두 개의 본동사가 이어 나온 것이다.

한편 겹문장은 둘 이상의 절로 구성되기 때문에 홑문장에서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통사 현상이 일어난다. 겹문장에서 두 절에 동일한 대상을 지시하는 성분이 있을 때 둘 중 하나의 성분이 생략되거나 다른 말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 안은문장에서는 안긴문장의 성분이 생략되거나 다른 말로 바뀌며, ㉡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에서는 앞 절의 성분이 남고 뒤 절의 성분이 다른 말로 바뀌거나 생략된다. 그리고 ㉢ 겹문장을 형성하는 어미에 따라 앞 절의 주어와 뒤 절의 주어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거나, 반대로 앞 절의 주어와 뒤 절의 주어가 달라야 하는 제약이 있다.

3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은 '그는 집에 가기를 싫어한다.'에서 확인되며, 안긴문장의 서술어 '가다'와 관계를 맺고 있는 주어가 생략되었다.
② ㉠은 '그는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한다.'에서 확인되며, 안긴문장의 '그'가 '자기'로 바뀌었다.
③ ㉡은 '나는 빵을 샀으나 그것을 먹지 않았다.'에서 확인되며, 앞 절의 '빵'이 남고 뒤 절의 '빵'은 '그것'으로 바뀌었다.
④ ㉢은 '나는 그를 만나러 그녀와 도서관에 갔다.'에서 확인되며, 어미 '-러'는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달라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⑤ ㉢은 '그는 신문을 보면서 밥을 먹는다.'에서 확인되며, 어미 '-면서'는 앞 절과 뒤 절의 주어가 일치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3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오늘은 날씨가 많이 덥지 않다.
ⓑ 그는 한동안 소설책만 꾸준히 사서 모았다.
ⓒ 그녀는 이웃집 아이를 위해 노래를 부르고 싶었다.

① ⓐ에 나타난 '덥다'는 생략되었을 때 비문이 되기 때문에 문장 전체의 서술어로 볼 수 없다.
② ⓐ의 '덥지'에서 '-지'는 두 용언을 연결해 주지만 겹문장을 만들지는 않는다.
③ ⓑ에 나타난 '사다'와 '모으다'는 모두 '그는', '소설책만'과 관련을 맺고 있다.
④ ⓑ에 나타난 '사다'나 '모으다' 중 하나만 서술어 자리에 나타나도 문장이 성립된다.
⑤ ⓒ에 나타난 '싶다'는 '그녀는'과 호응하지 않기 때문에 문장 전체의 서술어로 볼 수 없다.

37. 다음은 수업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선생님 : 국어의 음절 유형을 크게 분류하면 '1 모음, 2 자음 + 모음, 3 모음 + 자음, 4 자음 + 모음 + 자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단어는 발음할 때, 연음이나 음운 변동이 일어나면서 음절 유형이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집[집]+일[일]→집일[짐닐]'에서 [집]은 [짐]으로 음절 유형이 바뀌지 않았지만 [일]은 [닐]로 음절 유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아래 단어들을 탐구해 봅시다.

물놀이[물로리]	아랫입술[아랜닙쑬]
육각형[육까켱]	닭고기[닥꼬기]

이 단어들 가운데 음절 유형이 바뀐 음절이 있는 말을 찾아보세요.

학생 : [㉠]

선생님 : 그렇다면 이 중에서 음운 변동에 의해 음절 유형이 바뀐 음절이 있는 말을 찾아보세요.

학생 : [㉡]

선생님 : 네. 모두 잘 이해하고 있군요.

	㉠	㉡
①	물놀이, 아랫입술, 육각형	아랫입술, 육각형
②	물놀이, 아랫입술, 육각형	물놀이, 아랫입술
③	물놀이, 아랫입술, 육각형	물놀이, 육각형
④	아랫입술, 육각형, 닭고기	아랫입술, 닭고기
⑤	아랫입술, 육각형, 닭고기	아랫입술, 육각형

38. <보기>의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의 연결 방식에 따라 ㉠ 통사적 합성어와 ㉡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눌 수 있다. 통사적 합성어는 '명사 + 명사', '용언의 관형사형 + 명사', '용언의 연결형 + 용언의 어간'과 같이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으로 형성된 단어이다. 비통사적 합성어는 '용언의 어간 + 명사', '용언의 어간 + 용언의 어간'과 같이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에서 어긋난 방법으로 형성된 단어이다.

① '눈물'은 명사와 명사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② '큰형'은 용언의 관형사형과 명사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③ '오르내리다'는 용언의 연결형과 용언의 어간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④ '덮밥'은 용언의 어간과 명사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⑤ '높푸르다'는 용언의 어간과 용언의 어간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에 해당한다.

39.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에 있는 중세 국어 조사의 쓰임에 대해 알아보자.

○ 淨飯王(정반왕)이 깃그샤 ㉠ 부텻 ㉡ 소ᄂᆞᆯ 손소 자ᄇᆞ샤
[정반왕이 기뻐하셔서 부처의 손을 손수 잡으셔서]

○ 내 ㉢ 지븨 이실 쩌긔
[내 집에 있을 적에]

○ ㉣ 님금하 아ᄅᆞ쇼셔
[임금이시여 아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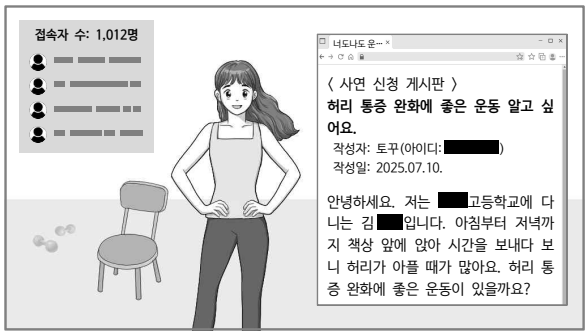
○ ㉤ 첫소리ᄅᆞᆯ 어울워 ᄡᅳᆫ디면
[첫소리를 어울려 쓸 것이면]

① ㉠을 보니 존경의 자질이 부여되는 체언 뒤에 관형격 조사 'ㅅ'이 쓰였군.
② ㉡을 보니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목적격 조사 'ㅇᆞᆯ'이 쓰였군.
③ ㉢을 보니 무정명사인 체언 뒤에 관형격 조사 '의'가 쓰였군.
④ ㉣을 보니 존대의 대상인 체언 뒤에 호격 조사 '하'가 쓰였군.
⑤ ㉤을 보니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목적격 조사 'ㄹᆞᆯ'이 쓰였군.

[40~43] (가)는 실시간 인터넷 방송이고, (나)는 (가)를 시청한 학생이 자신의 블로그에 작성한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안녕하세요. 다양한 운동법을 알려 드리는 '너도나도 운동행' 채널의 ○○입니다. '딱 맞는 운동을 찾아 줘' 시간인데요. 오늘 방송은 10분 동안만 진행할게요. ㉠ 카페 비공개 게시글을 통해 50명이나 사연을 보내 주셨어요. 그중 '토꾸'님의 사연이 가장 공감돼서 오늘의 사연으로 선정했어요. 개인 정보는 소중하니까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리고 보여 드릴게요.



허리 통증을 느끼는 건 우리 몸의 중심이 흐트러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의 중심이 흐트러지면 ㉡ 잘못된 자세로 생활하게 되어 몸에 통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바른 자세로 생활할 수 있도록 몸의 중심을 지탱하는 근육들을 코어 근육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은 코어 근육 강화를 위한 동작을 알려 드릴게요.

필요한 준비물은 의자인데요, 오늘 소개할 운동은 의자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실천해 볼 수 있습니다. (등받이 있는 의자에 앉으며) 우선 저처럼 이렇게 의자에 앉아 주세요.

[A]
- 아롱별: 화면이 흐릿해서 잘 안 보여요. 카메라 초점 좀 선명하게 맞춰 주세요.
- 미롱이: 우리 집에 있는 의자는 등받이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떡하나요?

(카메라 가까이 이동하며) 잠시 초점을 조정할게요. 이제 잘 보이네요. '미롱이'님, ㉢ 이 동작은 등을 기대지 않고 진행하기 때문에 등받이가 없는 의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곧게 펴 주시고, ㉣ 숨을 들이쉬며 배를 부풀렸다가 배를 최대한 안쪽으로 밀어 넣는다는 생각으로 배에 힘을 주세요. 뱃가죽이 등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30초를 버텨 주시면 됩니다. 함께 30초 버텨 볼게요.

[B]
- 꽃구름: 운동을 할 때 호흡이 중요하다던데 호흡은 어떻게 하나요? 30초 동안 숨을 참아야 하나요?
- 온새미: 어느 부위를 자극하는 운동인지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인지 알려 주세요.

'꽃구름'님, 유익한 질문이에요. 숨은 참지 마세요. 배를 안쪽으로 밀어 넣을 때에는 날숨으로 호흡해 주세요. 의자에 등받이가 있는 경우 등을 기대지 마시고, ㉤ 상체를 쭉 펴 주어야 운동 효과가 높아져요. (손가락으로 천장 쪽을 가리키며) 정수리를 이쪽으로 끌어 올리면서 쭉 펴 주세요. 이 동작을 틈날 때마다 여러 차례 반복해 주면 된답니다.

'온새미'님 좋은 의견 감사해요. 이 동작은 복횡근과 복직근을 강화하는 동작입니다. (이미지를 검색하며) 어느 부위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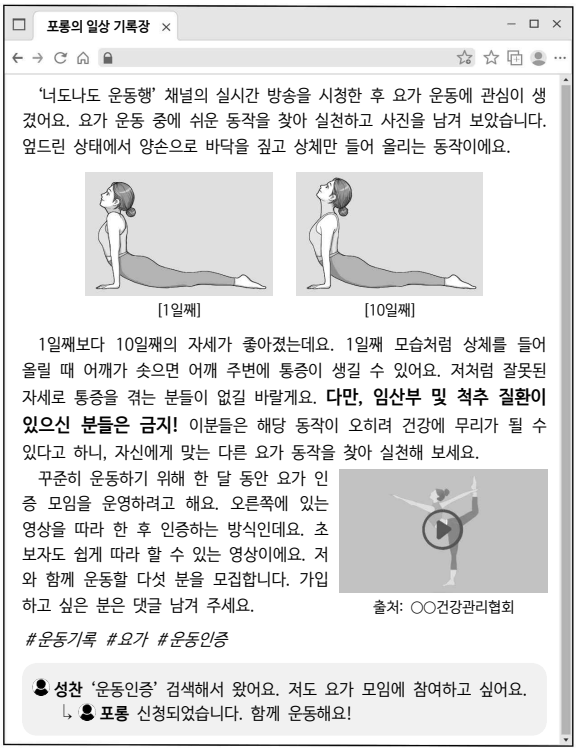
보여 드릴게요. 화면의 사진 보이시나요? (이미지를 가리키며) 바로 여기예요. 여기 보이는 복횡근은 소근육이고, 복직근은 대근육이에요. 대근육과 소근육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방송 시간이 부족하니 생략할게요. 양해 부탁 드려요.

[C]

포롱 조용한 곳에서도 간편하게 따라 할 수 있을 것 같아 좋네요. 허리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알려 주세요.

'포롱'님, 허리 통증 완화에는 근력 운동뿐만 아니라 요가 자세도 도움이 돼요. 근육의 긴장을 풀어 줄 수 있는 다양한 요가 자세를 배워 보셔도 좋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제 채널에 다시 보기 영상으로 게시해 둘게요. 모두 틈틈이, 꾸준히 운동하는 것 잊지 말아요. 다음에 만나요!

(나)



40. (가)에 나타난 진행자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개인 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특정 정보를 제외한 화면을 제시하고 있다.
②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의 제약을 고려하여 정보의 양을 조절하고 있다.
③ 수용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설명하고 있다.
④ 수용자의 반응을 고려하여 다음 방송에서 다룰 주제를 소개하며 방송을 마무리하고 있다.
⑤ 정보가 시각적으로 전달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명 내용과 관련된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41. [A]~[C]에서 알 수 있는 시청자들의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A] : '아롱별'은 방송 화면의 문제를 언급하며 문제 상황의 개선을 요청하였다.
② [A] : '미롱이'는 자신이 처한 환경의 제약을 언급하며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였다.
③ [B] : '꽃구름'은 운동 중 호흡에 대한 배경지식을 언급하며 설명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④ [B] : '온새미'는 진행자의 설명에 대한 경험을 언급하며 주제와 관련한 추가 설명을 요청하였다.
⑤ [C] : '포롱'은 제공된 정보와 관련한 경험을 언급하며 방송 내용에 대한 개인적 판단을 드러내었다.

42.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동영상을 제시하여 요가 인증 모임에서 활용할 요가 동작을 소개하였다.
② 글자 크기와 굵기를 달리하여 요가 운동이 물리적인 효과를 강조하였다.
③ 특정 문구 앞에 '#' 기호를 붙여 해당 문구로 게시물이 쉽게 검색되도록 하였다.
④ 이미지를 나란히 배치하여 잘못된 자세와 개선된 자세의 차이를 드러내었다.
⑤ 댓글 기능을 활용하여 요가 인증 모임에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참여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보조사 '이나'를 사용하여 사연을 보낸 인원이 많음을 강조하고 있다.
② ㉡ : 연결 어미 '-어'를 사용하여 몸에 통증이 생길 수 있는 이유를 나타내고 있다.
③ ㉢ : 보조사 '도'를 사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의 범위를 알려 주고 있다.
④ ㉣ : 연결 어미 '-다가'를 사용하여 배를 부풀리는 것의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⑤ ㉤ : 연결 어미 '-어야'를 사용하여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건을 알려 주고 있다.

[44～45] (가)는 동아리 누리 소통망 대화이고, (나)는 모바일 앱 개발 동아리 학생들이 제작한 '학습 보조 앱' 시안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은영 얘들아, 우리가 만든 학습 보조 앱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어. 설문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파일을 공유할게. 설문 조사 내용을 참고해서 앱을 어떻게 수정할지 함께 논의해 보자.

만족도 조사 결과.pdf … ㉠

성구 '일정 관리' 기능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점이 눈에 띄네.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

재운 서술형 의견을 보니, 초기 화면에서 일정을 하루만 확인할 수 있는 점이 불편하다는 내용이 많더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면 편리할 것 같아.

수진 '일정 관리' 기능에 학교 홈페이지에 등록된 학사 일정만 연동되는 것이 아쉽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 앱 이용자들도 일정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재운 …… ㉡

지연 나도 동의해. 일정 등록 기능을 추가하면 개인별 학습 계획도 정리할 수 있어 일정 관리가 훨씬 체계적으로 될 거야. 다른 의견들도 확인해 보자.

남훈 '오늘의 단어'가 사전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좀 따분하게 느껴진다는 의견도 있어. 이건 어떻게 반영하면 좋을까?

지연 http://www.□□□.co.kr …… ㉢

혹시 이 누리집에 소개된 학습 콘텐츠 제작 사례를 본 적이 있어? 퀴즈 형식으로 영어 단어를 제시해 학습자가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했더라고. 우리도 이 방식을 적용하면 학습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 같아.

수진 좋은 생각이야. 지금까지 나온 의견 외에도 앱을 사용하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해 보자.

성구 나는 '할 일 목록'에서 끝낸 일을 표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과제를 끝낸 후 체크 박스를 눌러 완료 표시를 남길 수 있다면, 이용자들이 성취감을 느끼며 다음 과제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

남훈 그래. 그리고 '학습 통계' 기능을 통해 공부에 집중한 시간을 요일별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참 유용했던 것 같아. 여기에 과목별 학습 시간까지 구분해 제공하면 과목별 목표 학습량 달성에도 효과적일 것 같은데, 어때? 동의하면 공감하기로 알려줘.

♥3 ✓2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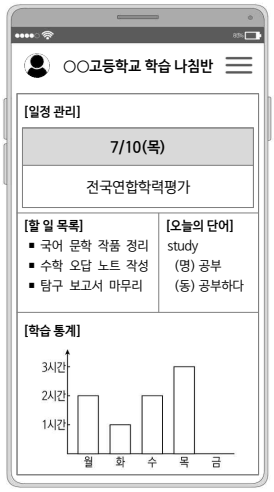
은영 다들 반응이 좋네. 그럼 오늘 나온 의견들을 정리해서 앱을 수정하고 추가로 논의하자. 다음 회의도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자. 내가 공지할게.

📢 공지
* 일시 : 2025.07.17.(목) 19:30
* 장소 : 동아리 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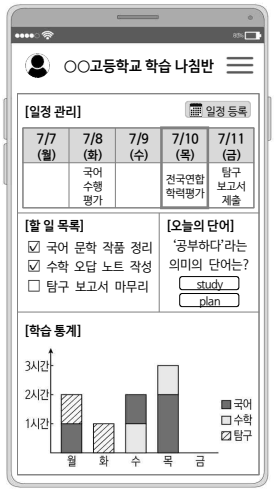
…… ㉤

(나)

(나)-1



(나)-2



44. ㉠~㉤을 통해 알 수 있는 매체 활용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파일을 전송하여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대화 참여자들과 공유하고 있다.
② ㉡: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표현하고 있다.
③ ㉢: 하이퍼링크를 이용하여 논의 내용과 관련 있는 참고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④ ㉣: 공감하기 기능을 활용하여 의견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다.
⑤ ㉤: 공지 기능을 이용하여 다음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45. (가)를 바탕으로 (나)-1을 (나)-2로 수정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일정 관리에 대한 '재운'의 의견을 반영하여 초기 화면에 더 많은 날짜가 표시되도록 조정하였다.
② 일정 관리에 대한 '수진'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용자가 직접 학습 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일정 등록 기능을 추가하였다.
③ 오늘의 단어에 대한 '지연'의 의견을 반영하여 영어 단어 제시 방식을 사전 형식에서 퀴즈 형식으로 변경하였다.
④ 할 일 목록에 대한 '성구'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제 완료 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⑤ 학습 통계에 대한 '남훈'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용자가 설정한 목표 대비 현재 학습량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였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